

### 전남대병원, 베트남에 사무소 개소

아시아권 해외환자 유치 교두보 확보



전남대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베트남에 현지 사무소를 열었다.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립, 앞줄 오른쪽)은 지난 16일 베트남 푸토병원에서 현지 사무소에서 협약식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소에서는 베트남 의료시장 조사, 병원 홍보·마케팅, 현지 병원과 네트워크 강화, 환자 의료정보 파악 등 업무를 맡는다. 환자들의 출입국 관련 업무 지원, 진료 후 사후관리, 본원과 정보교류 등도 주요 활동이다.

전남대병원은 국외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화 등 급변하는 국내외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병원의 의료수준을 알리려고 현지 사무소 개설을 추진했다. 푸토병원은 1965년 개원해 24개 진료과목에 1190명 직원, 1480 병상을 갖춘 대형 병원이다.

윤택립 전남대병원장은 “전남대병원의 의료수준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현지사무소가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아시아 국가로 현지 사무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남들과 다른 길 걸으면 세상 달리 보여요”

## 자전거로 미국 횡단한 전북대생 이우찬씨

“한 걸음만 더 내딛자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혼자서 페달로 밟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로 자전거를 타고 미주 대륙을 횡단한 뒤 복귀한 이우찬(26·전북대 무역학과 4년)씨는 지난 16일 전북대 교정에서 자전거 여행을 회상했다.

그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또래 친구들이 스킨 샹고 취업 걱정하느라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각정은 잠시 떨치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걷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5월 같은 학교 동년배인 정준호(26)씨와 함께 미국 뉴욕에서 시작해 로스앤젤레스까지 90일 일정의 ‘무전(無錢) 자전거 여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여권 도난이나 부상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 100만원을 빼고는 한 푼도 지참하지 않고 72개 도시를 거쳐 미국을 횡단하기로 했다.

국내 한 여행사와 자전거 업체의 지원을 받아 이들은 5월 12일 뉴욕땅을 밟았다. 무전여행이었기에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 잠자리를 구하고 끼니도 우연히 만난 여행객이나 알음알음 아는 사람을 통해 해결했다.

타오르는 열정, 벽차오르는 가슴과 달리 예상외로 고비는 첫날에 찾아왔다.

이씨는 “뉴욕에서 출발해 펜실베이니아를 지나는데 앤 신이 이렇게 많은지, 절여오는

## 90일간 뉴욕~LA ‘무전여행’

### 열정 하나로 도전 성공 뿌듯해

### 비행기 세계 일주 ‘파일럿’ 준비

허벅지와 정강이 근육 때문에 거의 포기상태였다”며 당시의 고충을 설명했다. 달리기 한 장 한 장 넘어가며 몸과 마음이 환경에 적응해갈 즈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는 이씨.

이씨는 쟁겨갔던 침낭과 텐트는 내뱉게치고 여행자 커뮤니티인 ‘카우치 서핑’이나 ‘월사위’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숙박을 하고, 기회가 되면 사이트 회원들과 여러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낯설고도 유쾌한 만남이 이어지던 중 ‘긴박했던’ 만남도 있었다. 여행을 시작한 지 열흘 만인 5월 22일 월사위를 통해 만나게 된 친구와 카약을 타러 가던 중 9명의 지체장애인이 타고 있던 밴이 눈앞에서 전복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두 청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 장애인들을 차 안에 끌어내고 911에 도움을 요청했다. 옷이 시뻘겋게 물드는지도 모른 채 의식이 없는 한 장애인에게 인공호흡을 하던 찰나 주위를 보니 저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을 붙잡고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다. 이씨는 “까



이우찬(26·전북대 무역학과)씨가 자전거로 미주 대륙을 횡단하는 과정에서 만난 외국인 라이더와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만 피부든 황색 피부든 관계없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선진 시민의식에 놀랐다”고 감탄했다.

횡단을 하던 중 소중한 인연과 헤어지기도 했다. 이씨와 함께 라이딩을 하던 정씨가 여정 중반쯤 건강이 나빠져 먼저 한국행 비행기에 탄 것이다.

이씨는 “횡단 경로와 방법을 놓고 타격태 격했던 친구 없이 배낭을 자전거에 싣고 달리는 길이 외로워 서쪽 하늘을 보며 많이도 울었다”며 친구의 중도 포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파노라마처럼 지

나간 횡단이었다”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걷지 않는 길 위에서 만난 인연들이 있었기에 더 소중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2일 로스앤젤레스 레돈도 비치에 도착하면서 70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그는 “충족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레돈도 비치에 서서 저물어가는 해를 보는데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평탄한 길을 거부하는 그는 “비행기로 세계일주를 하기 위해 파일럿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부하직원이 진심으로 따르는 CEO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 서부경찰서 금호방범대, 사랑의 쌀 전달



광주 서부경찰서 금호자율방범대(대장 조홍영)는 최근 일일주점을 열어 마련한 쌀 50포대를 광주시 서구 금호동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했다.

광주 서부경찰서 금호자율방범대 제공

### 두암사회복지관 ‘추석맞이 송편빚기’ 행사



두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영길)은 지난 16일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정 나눔, 삼정송 고을 송편 빚기’ 행사를 열었다.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제공



## 김홍빈 대장 지리산둘레길 완주

### 7박8일간 245km 종주

### 히말라야 14좌 완등 도전

김홍빈 대장이 최근 지리산둘레길(245.5km) 종주에 성공했다.

쑤어등산리조트와 트레스타의 후원과 협찬을 받아 진행된 ‘김홍빈 대장과 함께 걷는 지리산둘레길’은 7박8일간 전남·전북·경남지역 120여개 마을을 통과하는 코스로 이뤄졌다.

모두 6명이 출발했으나 하루 13시간

40km가량의 산행과 취사와 야영이라는 극한 상황 때문에 김 대장과 이동욱, 서경재, 방영은 등 4명만 종주할 수 있었다.

김홍빈 대장은 “극한 상황에 도전해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기 위해 시작했다. 주변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무사히 완주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 대장은 열 손가락 절단이라는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정상 완등에 도전 중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존 버그만 교육 컨설턴트 22일 광주서 특강

존 버그만(사진) 교육 컨설턴트가 광주를 찾는다. 그는 오는 22일 광주시교육연수원(원장 구재삼)을 찾아 ‘미래교실 디자인’을 주제로 특강한다.

존 버그만씨는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플립 러닝)을 고안한 교육전문가다. 거꾸로 수업은 교사가 동영상으로 공부할 내용을 녹화해 학생들에게 주면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으로 시청한 뒤 수업 시간에는 동영상 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실험, 질의응답식 심화학습을 하는 교육방식이다. 학생들이 수업 주도권을 갖고 더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장, 22일 열리는 특강을 들겠다는 광주·전남·북 교사들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교육연수원 박은아 교육연구사는 “이번 특강은 미래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교육 혁신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 조만승 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장 대통령 표창

조만승(사진 오른쪽) 한국국토정보공사(LX·옛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서울 서초구 테헤란호텔에서 열린 ‘2015 스마트국토 엑스포’에서 조 본부장이 국가공감정보공학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본부장은 LX에서 지적정보사업단장, 사업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지적연수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목포대에서 지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화축

▲심흥구·문성희씨 아들 동수군 최복규(전 광주은행 본부장)·정정안씨 딸 지연양=19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컨벤션 4층 디아망홀.

▲오장명·이덕임씨 아들 형근군 홍준영·서이순씨 딸 지현양=20일(일) 낮 12시 광주시 서구 상무리즈컨벤션 2층 데이지홀.

▲정은숙(정솔화원 대표)씨 아들 김진수(광주일보 사진기자)·박순배(고려 구내식당 대표)·이옥희씨 딸 지유양=10월 3일(토) 낮 12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메종 드 보네르(구 썬의공전) 1층 보네르홀.

### 중친회

▲문화류씨 대종회 해남지회(총무 류호철) 추계연찬회=20일(일) 오전 10시 해남 우슬재 문화류씨 선산 앞 광장 010-5616-7116.

### 알림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 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금융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가시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할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모집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차매예방지킴이 재능프로젝트’ 수강생 모집=중이

접기, 풍선, 스트레칭 등 교육.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수·목요일에 운영. 누구나 환영 062-608-8920.

▲디자인 스킷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 인습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 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회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은 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안전모니터봉사단원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제보활동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인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 누구나 가능) (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광역시지회 062-514-2929.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원=자원봉사 남자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 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디자인 스킷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

인습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 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 부음

▲구교씨씨 별세 구종근(화순군수)씨 부친상=별인 19일(토)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1-379-3007, 010-3666-8393.

<p><b>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p>	
<p><b>201호 故정성호 님 (남/77세)</b>          子/子婦: 김만중/이재현, 민호/정미영          女/婿: 김만주/나재삼          •발인: 9월 19일          •장지: 영락공원</p>	<p><b>402호 故주영란 님 (여/88세)</b>          子/子婦: 조영석/유자미, 영진/정미영          女/婿: 조영란/김석준, 영수          •발인: 9월 19일          •장지: 도곡선영</p>
<p><b>101호 故문준환 님 (남/69세)</b>          子/子婦: 문명현/이철화, 성현          未亡人: 정명란          •발인: 9월 19일          •장지: 영락공원</p>	<p><b>102호 故이민경 님 (여/71세)</b>          子/子婦: 안석원/정주희          女/婿: 안명희/서종철, 명화/김주혁, 명진/서종현          •발인: 9월 19일          •장지: 영락공원</p>
<p><b>孝 金호장례식장</b>          http://www.mykumho.com</p>	
<p><b>문의 (062)227-4000</b></p>	